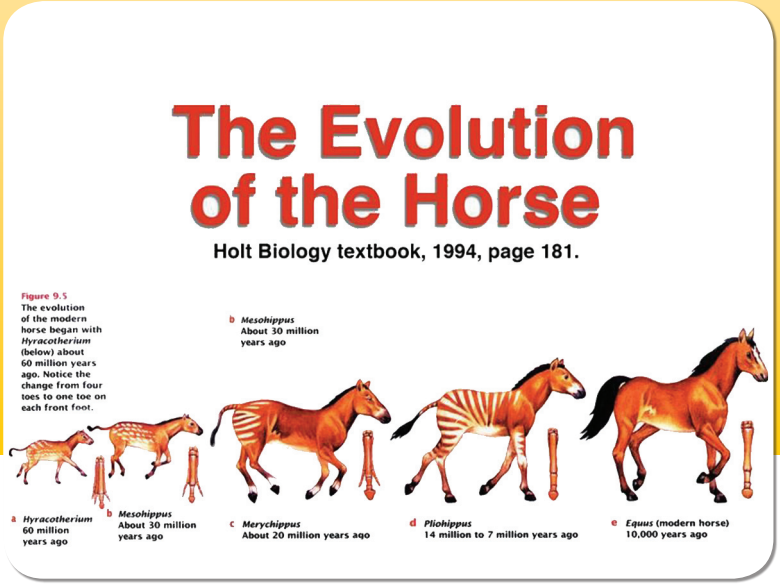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19 Number 8 • 8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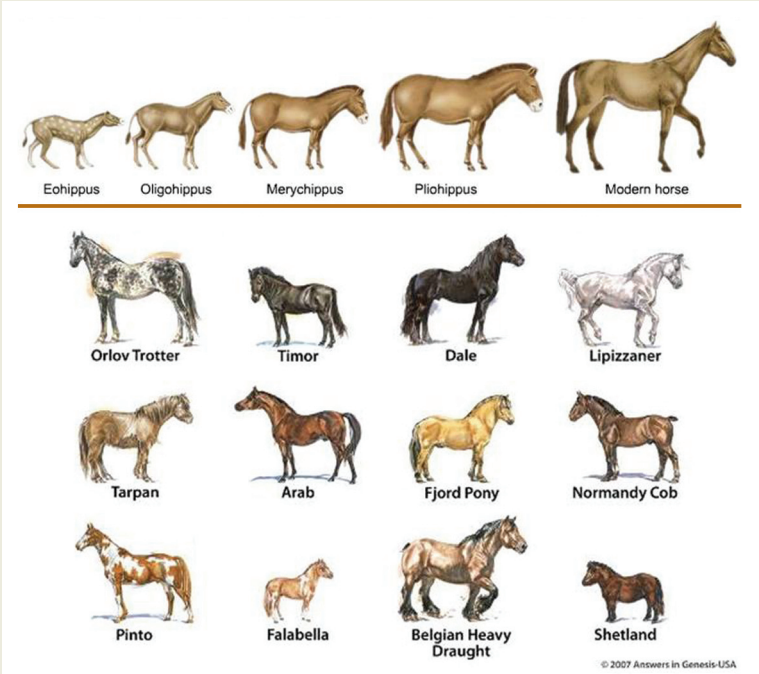
CREATION TRUTH



말 화석—교과서 속의 진화론(4)

지층 속에는 수많은 화석이 존재한다. 이 화석들은 과거 생존했던 생물의 흔적이므로 과거 역사의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과거에 진화가 일어났다고 믿는 진화론자들도 역시 화석을 가지고 그 진화의 단서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진화의 증거로 발표되기도 했으며, 교과서에 수록되기도 했다.

그 가운데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것처럼 배열된 가장 멋진(!) 화석 그림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말의 진화'일 것이다. 말발굽이 4개, 3개, 2개, 1개로 줄어들고, 반면에 크기는 작은 것에서 점점 큰 것으로 변하는 동물들의 모습이다. 그 각각 화석의 이름도 '에오히푸스', '메소히푸스', '메리치푸스', '프리오히푸스', '에쿠우스'와 같이 비슷하기도 하고 까다롭게 명명하여 처음 듣는 사람은



점점 커졌다는 진화론적인 설명(위 그림)과 변이에 의해 다양한 크기의 말들(아래 그림)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접근하기도 불편하다. 어쨌든 이 그림은 참으로 매력적이 아닌가? 더군다나 6천만 년, 4천만 년, 3천만 년, 1천만 년, 1백만 년 전이라고 숫자로 그 화석의 정확한 나이까지 기록되어 있으니 말이다.

이 말의 진화 내용은 1882년에 처음 그려진 것이며, 그 이래로 거의 수정 없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일차적으로 이 말의 그림들은 모두 화석에서 얻어진 것들이다. 그러나 이 화석들이 어떤 한 지역에서 지층에서 그림과 같이 순서적으로 발견된 것들이 아니다. 북미와 유럽에 각각 흩어져 있는 것들이다. 이 흩어져 있는 화석들을 자신의 진화론적 신념으로 책에 인위적으로 모아 이야기로 엮은 것이다. 즉 지금 살아있는 현대 말이 가장 진화되었다는 전제를 갖고 나머지를 그 말의 조상으로 배열한 것이다.

그러나 말이 진화함에 따라 발굽이 줄어든다는 상상은 참으로 놀랍지 않은가? 왜 말발굽이 줄어드는 것이 진화하는 방향이며, 왜 발가락이 여러 개인 동물이 더 하등한 것일까. 그렇게 진화하는 것을 본적은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이는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스스로 진화의 편견으로 꾸며 만든 이야기다.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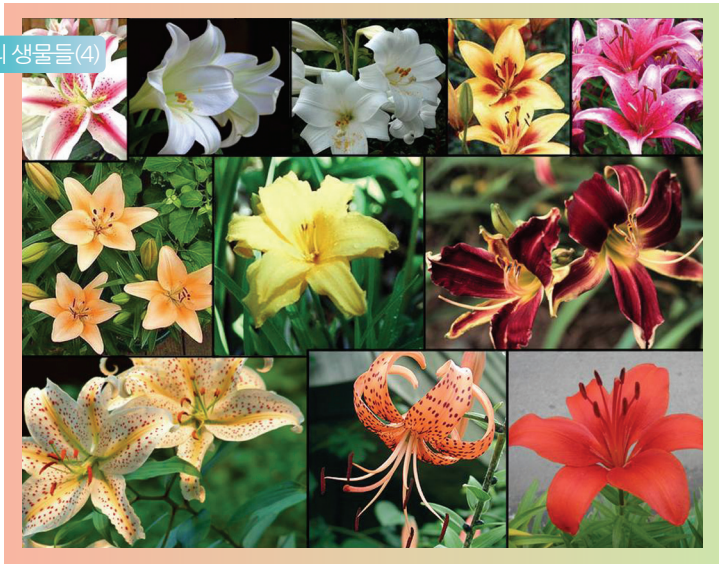
제로 이들 중에 어떤 것은 말발굽과 함께 다른 부위의 뼈들도 함께 발견된 것들도 있는데, 갈비뼈 수는 18–16–18, 허리뼈 수는 6–7–8–6으로 서로 일관성을 보여주지 않는다! 또한, 학계에서 가장 작은 첫 동물은 토끼와 비슷한 하이렉스나 오소리 같은 다른 동물로 이미 결론났다. 오늘날 말 중에는 그들이 진화론적으로 가장 작다고 하는 에오히푸스보다 더 작은 말도 존재한다. 신체가 커진다고 진화가 아니다. '종류'가 변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작은 말도 여전히 '말(horse)'이라는 종류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다.

진화 백과사전에서도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는 말의 진화를 보여주는 처음 전시물은 제거되었다"(Milner, 1990)라고 언급했다. 이 말 화석 그림은 증거가 아니라, 자신의 진화에 대한 신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진화론 학자가 자신이 믿는 바대로 상상해본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실에서 이를 진화의 증거로 배우고 있는 것이다.

그림마다 숫자로 붙여진 수천만 년의 나이들도 측정해서 얻어진 것들이 아니란 것을 아는가? 화석은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원리상 연대측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말 화석도 여기에 예외가 아니다. 진화론자들은 화석과 함께 거의 빠짐없이 숫자를 사용하곤 하는데, 측정된 결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에 대한 신뢰를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말의 진화 그림이 이렇게 문제가 분명함에도 이 옛날 그림이 아직도 교과서에 남아있는 것이 놀랍지 않은가?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때가
이르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니
딤후 4:3-4



Lilium 백합

아침에 일어나 차를 타고 이웃을 지나쳐 갈 때면 길가에 줄지어 선 꽃들이 나를 반긴다. 여기 저기 모양과 색깔이 다른 예쁜 꽃들과 나무들이 나를 가슴 벅차게 한다. 아! 감탄의 탄성이 나온다. 어떻게 이렇게 기묘하고 아름답게 지으셨을까?

세포에 대해서 그리고 유전자들의 표현에 대해 약간의 지식이 있다면 그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자라는지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솜씨에 더욱 더 감탄하게 된다. 세포 한 개가 뉴욕 시보다도 더 복잡한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을 뿐 아니라 그 부품들은 만들 수도 없는데, 그렇게 놀라운 세포들이 지난 밤 셀 수도 없이 많이 생겨 이렇게 아름다운 풀과 꽃들과 나무들을 새롭게 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경외감이 생겨나고 숨이 막힐 지경이다.

이 아름다운 꽃들 중에 순결, 무죄, 순수, 평범 등의 꽃 말이 있는 백합은 구약과 신약 성경뿐 아니라 찬송가에도 등장한다. 그러나 '평범'하다는 백합꽃에 대해 조금만 살펴 보아도 꽃 말과는 달리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세계 속에 들어 갈 수 있게 된다.

백합(Lilium) 혹은 나리라는 이름은 백합과에 속한 17 속(genus)들 중에 한 속의 이름으로 총 110 여 종(species)의 백합이 있다.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나팔백합, 고사백합, 하늘나리, 참나리, 솔나리 외에도 선녀나리, 당개나리, 마돈나나리, 리갈나리, 산백합, 사크백합, 날개 하늘나리, 빈틈나리, 토용나리, 중나리, 섬말나리, 헨리백합

등 수 많은 다른 나리들이 다 백합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백합(百合)이란 단어는 흰 색을 생각나게 하지만 사실은 흰 색이 아니라 수가 많다는 백(百, 100)자를 사용한다. 이름이 말하고 있듯이 백합 꽃의 모양과 색깔은 무척 다양하다. 꽃잎은 6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 장은 넓은 꽃 조각으로 안쪽에 나머지 3 장은 좁은 꽃 조각으로 바깥쪽에 붙어 있다. 가끔은 이것이 겹으로 피는 것도 있고 8겹으로 피는 것도 있다고 한다. 꽃이 피는 방향도 위를 향하기도 하고, 아래로, 옆으로 향하는 등 종마다 다양하고 꽃 조각의 크기도 3 cm 정도에서 30 cm까지 다양하다. 특이한 모양의 수술도 빼 놓을 수 없다. 수술은 모두 6개인데 수술의 끝이 수술 대에 마치 T자 모양으로 걸려 있다. 또, 꽃의 색깔은 파랑, 검정, 보라색을 빼고 거의 모든 색이 있어 그야말로 백합의 진수를 보여준다.

녹색의 잎 가운데서 쑥 돋아 난 꽃 대에 생긴 꽃 망울의 구조도 신기하고, 그 꽃망울 속에 생겨나는 갖가지 색소들은 어떻게 생겨 났을까? 과학자들은 그 색소들이 안토시안계의 색소, 카로티노이드계 색소 등이 백합의 꽃 색깔을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 하였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질문들, 왜 그런 꽃망울을 맺는지, 그런 과정이 일어나게 하는 정보는 어디서 왔는지 등은 알지 못한다. 과학자들은 보이는 것들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는 창조의 믿음을 요구한다(히브리서 11:3). 유전학에 의하면 백합의 유전자는 시간이 지나도 새로운 유전자가 우연히 생겨 나지 않는다(유전형질 보존의 법칙). 지금까지 돌연변이에 대한 수십만 건의 연구 보고가 있었지만 우연히 새로운 기능을 가진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보고가 없다. 관찰과 실험을 통해 알려진 유전법칙에 의하면, 유전 정보는 복사되면서 기존의 정보가 망가지거나 없어지기는 하지만 새로운 기능을 가진 정보가 생겨나지 않는다. 또, 정보의 법칙에 의하면 모든 정보는 정보의 주인이 있어야 한다.

백합은 창조주간 3일째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신 여러 종류의 식물들 중의 한 종류다. 이 백합 속에는 처음부터 모든 다양한 백합의 유전정보가 들어 있었다. 다만 이 유전정보들은 원예가들의 도움으로 혹은 자연에서 대를 이어오면서 처음 정보가 계속 재조합 되고 가끔은 돌연변이 되면서 수백 가지의 아름다운 변이 품종의 백합들을 만들었다. 눈에 보이는 백합들의 갖가지 꽃 모양과 색깔들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백합의 모든 정보들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그 분을 위하여 창조 되었다(요한복음 1:3; 골로새서 3:16).

백합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자녀(형상)들이 보며 즐거워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 할 것을 그리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기뻐하셨던 능력과 사랑의 주님이 마음 속에 항상 계시기를 바란다.

최우성 박사
생리학

ACT *News*

창조과학탐사여행
창조박물관 견학 / 집중훈련

창조과학 탐사여행

여름에 들어서면서 탐사여행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참석하기도 하고, 교회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탐사여행도 이어졌습니다.

6-9일(서울 목동지구촌교회, 담임목사 조봉희), 6월 13-16일(CGN-TV, 조정민 목사) 탐사여행이 이어졌습니다. 지구촌교회는 담임목사님을 비롯하여 교회 리더쉽들이 참석했는데 오는 8월, 내년 2월에도 탐사여행을 미리 계획했습니다.

서울 목동지구촌교회 탐사여행 – 브라이스캐년

유학생 탐사여행 – 그랜드캐년

CGN-TV는 두 개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계획을 갖고 참석했습니다. 이 필름은 오는 10월경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탐사여행에는 유명 연예인들도 함께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CGN-TV는 앞으로 목사 및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탐사여행 등 다양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차 신학생 탐사여행이 있었습니다. 매년 ANC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유진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학교가 진화론의 영향으로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변증이 약화된 이 시대에 보석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참석한 신학생들은 신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내용들이 진화론의 영향하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것과 탐사여행의 귀중함을 공감했습니다. 이번에는 온누리교회 네 명의 부목사님들도 함께 하셔서 뜻 깊었습니다.

한편 6월 마지막 주일에는 12차 유학생 탐사여행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온누리교회(담임목사 하용조)와 얼바인 온누리교회(담당목사 박종길)의 지원으로 매년 6월 마지막 주와 1월 첫 주에 진행됩니다. 이번에도

CGN-TV 탐사여행 - 세도나

빙하시대 탐사여행 – 요세미티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참석한 유학생들은 자신들의 미래의 방향을 정하는데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빙하시대 탐사여행

모집하는 빙하시대 탐사여행이 지난 6월 23-25일 출발했습니다. 탐사여행을 통해 빙하시대의 이해와 함께 욥기와 바벨탑 등 노아홍수 이후부터 아브라함까지 일어났던 성경적 증거와 의미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4월 출판된 '빙하시대 이야기'가 교과서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번 탐사여행은 지난 겨울과 봄에 눈이 예년보다 세 배나 많이 내려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넘는 Tioga Road가 다소 늦게 열렸지만, 그 만큼 많은 양의 눈이 녹은 물로 인해 각 폭포가 절경을 이루었다. 빙하시대 탐사여행은 매년 6월 중순에 출발합니다.

일본인 리더쉽 탐사여행

지난 7월 4-8일 이재만 부회장은 일본 창조과학회 회장인 우사미 미노르를 비롯하여 다섯 명의 일본인 리더쉽들과 함께 요세미티와 Death Valley를 중심으로 빙하시대 탐사여행을 가졌습니다. 탐사여행을 통해 내년부터 일본에서도 빙하시대 탐사여행을 모집해서 올 것을 계획했습니다. 일본인 탐사여행은 올해 8월 말에도 출발합니다.

일본 리더쉽 탐사여행 – 요세미티 정상

예일장로교회 창조과학 탐사여행

뉴욕 지역에서 처음 있었던 탐사여행은 EM

탐사여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8일부터 4일간예일장로교회(담임목사: 김종훈)과 함께 중고등 학생들 30명을 포함해 총 41명이 참석 하였습니다. 수 개월 전부터 잘 준비 된 탐사여행으로 김낙경 박사가 영어로 인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뉴욕 지역에서도 창조과학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샌디에고 창조박물관 견학

지난 6월 25일 갈릴리은혜교회(담임 구본철 목사)는 최우성 박사의 인도로 교회 어른들을 중심으로 샌디에고의 창조와 지구역사 박물관을 방문 하였습니다. 갈릴리은혜교회는 교단 창조과학탐사여행을 후원하였고, EM 탐사여행을 다녀 오는 등 창조과학을 적극 사용하며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창조과학 집중훈련(ITCM) 프로그램에서 강연하고 있는 최태현 박사

교회 세미나

창조과학 세미나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만 부회장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는 6월 한달 동안 매주 주일 노아홍수와 빙하시대를 주제로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다솜교회와 토렌스 조은 교회에서도 세미가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최태현 박사는 순회선교단 미주지부에서 (6월 11일), 시카고 아가페 침례교회와 조지아의 새한장로교회에서는 EM 세미나가 각각 이동용 박사와 김선욱 박사의 인도로 진행 되었습니다.

창조과학 집중훈련 프로그램

지난 6월 24일부터 한동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4 명의 대학생들이 창조과학 집중훈련(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Ministry)을 받고 있습니다. 7월 중에는 한 명이 더 늘어 5명이 됩니다. 이 중에는 2 기 훈련생 1 명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 훈련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인 도우심을 주신 안산동산교회(담임: 김인중 목사), 이리동산교회(담임: 전계헌 목사), 포항두란노교회(담임: 안양호 목사)와 개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별도로 현재 제 2기 집중훈련을 하는 훈련생 1 명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많은 후원과 기도 부탁 드립니다.

지난 7월 2일(토)에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최태현 박사의 강의가 오후까지 진행 되었습니다.

최태현 박사 사역지 변경

최태현 박사는 University of Hawaii의 교수직을 위해 7월 5일부로 사역지를 LA에서 하와이로 옮겼습니다. LA 지역의 사역자와 새로운 곳에서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
시작은 달랐다.

어렸을 때 가끔씩 논쟁이 되던 주제가 기억날 것이다. "닭이 먼저냐? 아니면 달걀이 먼저냐?" 사실 이 논쟁은 어느 쪽에서 시작했을지라도 결론 없이 끝나고 만다. 아무도 처음을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18, 19세기 유럽을 지배했던 철학 가운데 '자연주의(naturalism)'라는 것이 있다. 어떤 것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설명하려는 철학을 말한다. 자연주의 하에서 닭과 달걀에 대한 질문은 영원한 수수께끼다. 닭 없이 달걀이 생기는 것을 본적이 없을 뿐 아니라, 달걀을 제외하고 닭(병아리)이 탄생하는 것을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자연주의의 최고 걸작품이 바로 진화론이다. 진화론자들은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자연주의 하에서는 너무 당연하다. 자연주의 속성상 복잡한 것부터 존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복잡한 것이 먼저 존재했다면 이는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디자인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그렇다면 이는 자연주의 생각과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주의에 뿌리를 둔 진화론은 그 속성상 간단한 생물에서 시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판된 이래로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나 화석에서 진화에 필수적인 중간단계 생물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중간단계가 어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사람과 원숭이 사이에 아직까지 중간단계가 없어도(발표되었던 것은 모두 중간단계가 아닌 것으로 판명 났음) 아직도 찾으려고 노력한다. 보이는 것이 다라면 이들이 존재해야 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자연주의를 엄격히 배격한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의 지혜로 보이는 것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 11:3).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롬 1:20).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136:5).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보이는 것을 초월하신 보이지 않는 창조자에 대한 믿음이다. 자연주의 자들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한 믿음을 버린 것이다. 그리고 진화론을 탄생시킨 것이다.

첫 조상인 아담의 후손들이 "아빠의 부모는 누구예요?" 또는 "아빠는 엄마를 어떻게 만났어요?"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을 것이다. 정말 흥분되는 순간 아닌가? 첫 아빠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짓고 생기를 넣으신 것이다. 그리고 첫 엄마는 그 아빠의 갈비뼈를 갖고 창조된 것이다. 처음은 달랐다! 우리는 모두 아담과 하와 창조 이후에 태어났으며, 모두 육신의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므로 처음을 알지 못하면 시작은 끝도 없이 막연해지고 만다. 다른 말로 하자면 처음이 어땠는지 알고 있는 자를 만나지 못한 이상 그 시작은 도저히 알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처음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시작되었으니까!

아담, 그 이상은 보이는 것을 초월하신 창조주인 것이다(눅 3:38). 그 사실을 알았던 아담의 후손들이 세대가 지나며 처음을 잊어버리고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바르게 전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자녀들은 그 시작하신 이인 하나님 역시 잊어버리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잊으면 보이는 것만으로 설명하려는 자연주의가 들어오는 것이 순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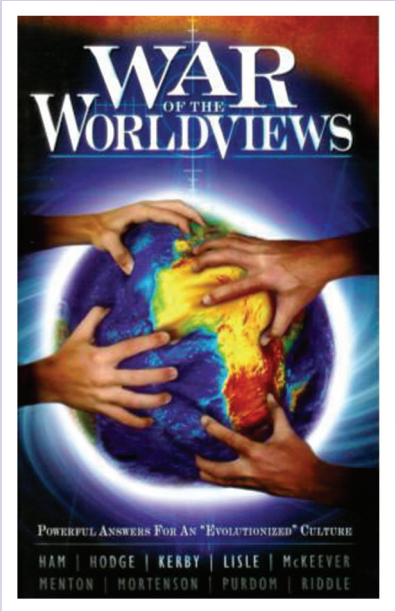
달걀만 보자. 달걀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절 선물로 달걀을 주지 않는가? 그러므로 달걀은 숨을 쉬고 있다. 달걀 껍질은 현미경으로 보면 수많은 구멍이 났는데, 산소를 들이마시며 이산화탄소를 내보낼 수 있는 완벽한 크기의 구멍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수천 개의 '코'를 갖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런 완벽한 달걀이 어미 닭이 노력해서 만들었을까? 어미 닭의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의 달걀이 되었는가?

알의 단계를 거치는 동물은 새뿐 아니라, 어류, 파충류, 양서류, 곤충 등이 있다. 단단한 껍질로 구성된 것도 있고 말랑말랑한 껍질로 된 것도 있다. 그러나 두 종류 간의 중간단계의 알도 발견된 적이 없이 각자가 한결같이 완벽한 모습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질문은 성경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 쉽다. "달걀 낳은 닭부터!" 보이는 것을 초월하신 보이지 않는 분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시작은 달랐다.

이재만 / 창조과학선교회 부회장

창조주를 아는 지식



창조론을 접하게 된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그냥 믿으면 되지 왜 하나님 말씀을 과학적으로 꼬치꼬치 따져서 믿느냐"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다. 이러한 생각의 근저에는 몇 가지 가정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논리적, 경험적으로 따져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가정이다. 물론 어느 정도는 논리적, 경험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것이 믿음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말씀 그 자체로 나오고 우리는 어린아이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나 근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창조론은 그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어떤 이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또 어떤 이들은 보혜사 성령님을 알게 됨으로써 믿음을 갖게 된다. 물론 이 분들은 하나이지만 인간은 경험이나 지식의 한계로 인해 자신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른바 '창조과학'의 결과물들을 신뢰하지 않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창조자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초점을 두는 창조론을 접하고 신앙이 더욱 뜨거워지는 일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것을 본다. 이 글에서는 창조주를 아는 지식이 과연 우리 믿음의 어떤 부분을 일깨워주는지를 한 번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창조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순전한 믿음에 풍성함을 더해 준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며, 그분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 구원이라는 점은 틀림없다. 인간이 펼친 다양한 신학, 이론, 변증들은 믿음의 궁극적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만났던 분들은 최소한 두 가지 측면에서 창조주에 대한 지식으로 삶이 변화되었다. 하나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하나님만" 아는 시대가 아니라는 데서 나온다. 오늘날은 성경을 믿기 어렵게 만드는 무신론, 그에 관련된 철학과 과학이론이 팽배한 시대이다. 이는 특히 2세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큰 요인이다. 이전 세대와는 달리 이들은 논리적, 경험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기 원한다. 이들에게 단순한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다. 창조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무신론적 사고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성경을 그대로 바라

보지 못하게 하는 안개를 걷히게 해준다. 창조주에 대한 지식을 통해 성경을, 창조주 하나님을 올곧이 보게 됨으로써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창조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이유와 찬양할 성품을 알려준다는 점이다.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할 때, 단지 사랑한다는 말만으로는 자신의 배우자를 충분히 높여줄 수 없다. 그에 대해 더 알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말들로 사랑을 고백해야 하는 법이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기 위해 그분의 창조주 되심과 그 능력을 노래하는 찬양으로 가득하다. 오늘날 성도들의 간증도, 창조주를 아는 지식을 얻은 이후 자신의 주위가 온통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그리고 심판의 흔적으로 가득함을 알게 되고 그분을 끊임없이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다. 창조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위해 우리의 입을 열어주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둘째, 창조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우리의 믿음이 성경으로 돌아오도록 돕는다. 사람마다 자신의 하나님을 그릴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극단적으로 말해 우리는 각자 자신이 만든 신을 섬기는 일이 될 뿐이다. 그렇다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창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며, 그 창조주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계시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란시스 쉐퍼는 전도를 위해 자신에게 1시간이 주어지면 50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 10분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쓸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창조론을 접하고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이며,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 다 쓰여 있었음을 깨닫고 놀란다는 간증을 많이 한다. 그렇다면 왜 이제껏 성경이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첫번째 선생님이 되지 못했는가? 여러 이유 가운데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도록 만드는 많은 이론들로 인해 성경의 권위를 확신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 있을 것이다. 창조주에 대한 지식은 성경의 권위를 회복시키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튼튼하게 한다.

셋째, 창조론 혹은 창조과학은 성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창조론의 역할은 성경을 완전히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향하게 하는 몽학선생 혹은 길잡이일 뿐이다. 따라서 창조론이 성경의 모든 의문을 푼다거나, 전혀 오류가 없는 완전한 이론체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이다. 성경만이 완전하다. 비유하자면 창조론은 그랜드캐년으로 가는 길 위에 쌓인 눈을 치워주는 일이지 그랜드캐년을 넓히거나 새로 만드는 일이 아니다.

창조주이자 구원자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잠언9:10), 우리 생명의 근원(잠언19:23)이다. 그분을 높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자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할 일이다(시편145:2). 그분의 이름을 널리 전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사명이다(마태복음28:19). 창조주를 아는 지식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교훈이다 (신명기6:7).

(이 글은 특별히 2011년 6월 빙하시대탐사여행을 함께 했던 분들의 간증을 토대로 나온 글임을 밝힙니다. 함께 한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태현 박사
행정학

간증

순복음라스베가스교회 EM 탐사여행

2011. 4. 18~20

2세들은 이 사역을 정말로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사역에 전념하는 군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시는데 이 사역을 쓰실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Joshua Kang/담임목사*

우리 머리 속과 문화와 교육에 진화론이 그렇게 깊게 새겨져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진리가 우리 귀에 들려질 것이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 *Grace Cho/선교목사*

하나님 이 여행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와 증거들이 제 믿음을 바르게 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 속이는 세상에서 젊은이들이 이 지식을 갖는 것은 믿음을 갖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Esther Cho/ Children's pastor*

이 여행 좋았었구요, 그리고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과학과 사회 과목 성적이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 *Haeun Chung/4학년*

하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분은 제 인생을 드릴만한 분입니다. – *Fernando Salas/5학년*

이 여행 좋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셨어요. 다음에 또 가고 싶어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이 나와 박사님께 영원히 계시길 바래요. 하나님, 박사님 사랑합니다. 왜 사람들이 진화를 들먹이는지 이해가 안돼요…. – *Gina Lee/6학년*

사실은, 엄마가 마지막에 저를 등록시켰어요. 근데 박사님이 투어 가이드란 걸 알고 흥분됐어요. 박사님이 내가 좋아한 첫 번째 목사/박사예요! 그랜드 캐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정말 아닌 것 같았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사실 같지 않았어요! 전 언제나 "증거 있니?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 있어?"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예전에 대답할 말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있어요. 이 여행 덕분에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천답게 믿음을 지킬 사실들을 가지고 있어요. 김 박사님 고맙습니다. 또 만나기를 바래요! – *Silvia Han/7학년*

안녕하세요! 이 여행에 오게 되어 정말 기뻐요. 지금까지 지낸 가장 좋은 봄방학이었어요.

박사님의 강의나 말씀들이 좋았습니다.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랜드캐년에는 7~8살일 때 가봤는데 일반적인 산만 보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산들이 노아홍수 동안에 어떻게 물에 덮이게 되었는지, 왜 산이 일정한 방식으로 형성 되었는지, 산들이 다른 색을 띠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Red Rock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신가요?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 *Jun Hee Bae/8 학년*

이 여행은 정말로 경이로웠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예전보다 더 깊이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전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 *Yerin Shin/9학년*

와! 진화론이 완전한 거짓말이란 과학적인 증명과 증거들을 볼 수 있게 되어 정말 좋았습니다. 더 좋은 것은 제 눈으로 창조의 증거들을 보고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창조를 이야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크리스천의 믿음에 이상하게 잘못 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이 이야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과학적인 면으로 더 배우게 된 것이 참 좋았습니다. 제 어린 신앙에 확신을 주었습니다. 전에는 전혀 몰랐던 성경의 사실들도 배우게 된 것도 참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 아래서 멸종이 되기는 했지만 공룡들이 진짜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음식과 여러 활동들도 즐거웠고, 여러 사람들과 하나님과 그 분의 창조에 대해 나누는 귀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요약하면, 그 여행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여행을 재미있고 강의를 알아듣기 쉽게 해 주신 김 박사님께 감사를 들립니다. 할렐루야! – *Ji Eun Bae/10학년*

"놀라우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외에는 더 쓸 것이 없습니다. 이 여행이 많은 생명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제까지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로렌스를 위해, 지난 몇 년간의 기도를, 눈물을 결코 잊지 않으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더 큰 사랑을 알게 되어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아담이 그랬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 평생 이 복음을 나누며 살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 현장에서 박사님과 사모님을 다시 뵙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뵙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 *Daniel Lee/11학년*

이 탐사여행에 오기까지 저는 거짓에 싸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믿음을 방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신앙을 방어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 오게 될 것 같습니다. – *Jessica Kim/ 대학교 2 학년*

- *번역되지 않은 전체 간증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역일정 SCHEDULE

2011년 ACT Schedule

8/1-3	창조과학 탐사여행 (기쁨의교회, 323-702-5919)LA, CA
8/7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 최우성, 213-381-1390), CA
8/7	LA 사랑의교회 (이재만),LA, CA
8/8-11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국 연합, 종교교회, 교사팀, 목동지구촌교회, 담당자: 이성호집사 010-2221-8855 한국 or 213-381-1390 미국)
8/12-14	좋은씨앗 교회 (이재만) (PA)
8/13	샌디에고 탐사여행 (창조과학학교, 최우성)
8/14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 최우성, 213-381-1390), CA
8/21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 최우성, 213-381-1390), CA
8/21-27	일본인 창조과학 탐사여행
8/28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 이재만, 213-381-1390), CA
8/29-31	빙하시대 탐사여행 (샌디에고 출발)
8/29-31	Oakville 한인교회 수련회(최우성), Oakville, Canada
9/3-5	창조과학 탐사여행 (L.A 온누리교회, 213-382-5658)
9/4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 최우성, 213-381-1390), CA
9/4	LA 온누리교회 (노휘성), LA, CA
9/9-11	베들레헴 교회(이재만), Chicago, IL
9/11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 최우성, 213-381-1390), CA
9/16-26	일본방문(이재만)
9/26-11/1	한국방문(이재만)
9/18	주님의영광교회 (최우성), LA, CA
9/2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최우성), Westminster, CA
9/25	주님의영광교회 (최우성), LA, CA
9/26-27	생터사역원 (이재만), 한국
9/27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최우성), Westminster, CA
10/2	주님의영광교회 (최우성), LA, CA
10/2	목동 지구촌교회 (이재만), 한국
10/4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최우성), Westminster, CA
10/4	전주대학교(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ACT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43 W Olympic Blvd #300, Los Angeles, CA 90015
Tel. 213-381-1390 Fax 213-381-9242 www.HisArk.com / hisark@gmail.com